

李대통령·여당, 한목소리로 “물가 잡아라”

비상경제TF 2차회의...“국민 큰 고통” 박찬대 “물가관리TF 구성 정부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목소리로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에 발 벗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달라”고 내각 및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관련기사 12면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그 점을 하나 챙겨봐야겠는데,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며 “라면 한 개에 2천원(도) 한다는 데 진짜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맥주나 라면 등 저허가 물품이 많이 오른 부분도 있다”며 “닭고기를 많이 수입하는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한두 달 시차가 있긴 한데 잘못 대응하면 급등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으니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책임감을 각별히 가져주시길 한번 더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렵지 않으나”며 향후 회의에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 등 실무자들도 가능하면 대동하고 참석할 것을 주문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에서 “먹거리 물가가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며 “당 차원의 물가 관리 TF를 구성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선 전 차기 정부의 민생 과제 1순위가 무엇인가를 묻는 말에 국민 열 분 중 여섯 분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으셨다”며 “국민의 말씀대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정부는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고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 현안을 보고받았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TF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물가 안정과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도 나서겠다”며 “소비가 줄어들어 골목상권이 침체한 지금은 소

비를 늘려 경기를 회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에 집중하고 필요한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대선 기간 중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약속한 만큼 민생을 위해 신속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李, 국정 잘할 것” 58.2%...우선 과제 경제회복 41.5%

“역대 대통령比 긍정 전망 다소 낮아”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 응답자 58.2%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5%, ‘잘 모르겠다’는 6.3%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긍정 전망 수치는

과거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리얼미터의 과거 대통령 당선 직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70.3%, 문재인 전 대통령은 74.8%, 박근혜 전 대통령은 64.4%, 윤석열 전 대통령은 52.7%의 긍정 평가를 얻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긍정 평가가 가장 낮았던 윤 전 대통령보다는 5.5%p 높지만 가장 높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2.1%p 낮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가 85.3%로 가장 높고 대구

·경북이 39.6%로 가장 낮았다. 수도권은 서울 57.6%, 경기·인천 59.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76.6%, 50대 70.0%, 30대 57.1%, 60대 50.9%, 70세 이상 48.9% 순이었다. 20대가 41.3%로 긍정 평가가 가장 낮았다.

이 대통령이 먼저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로는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이라는 응답이 4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검찰 개혁 및 사법 개혁’(20.4%), ‘국민 통합 및 갈등 해소’(12.8%), ‘정치 개혁 및 여야 협력’(8.3%),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4.6%)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8.0%로 직전

조사 대비 1.2%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34.8%로 0.3%p 하락해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13.2%p로 직전 조사보다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5.8%, 조국혁신당은 3.7%, 진보당은 1.4%로 각각 집계됐다. 개혁신당의 경우 직전 조사 대비 3.1%p 하락한 반면 조국혁신당은 같은 기간 2.0%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합뉴스

전남도, 도민 불편 규제 집중발굴

이달 중 민생경제·일자리 등 분야 접수

전남도가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찾아라, 도민불편규제! 민생규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발굴은 도민의 사회·경제 활동과

기업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30일까지 도민이면 누구나 전남도 대표누리집 행정규제개선 창구에서 참여할 수 있다.

발굴 분야는 ▲자영업,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청년 취·창업, 경력 단절 등 일자

리 ▲신기술·신산업 등 미래산업 ▲출생·육아, 노인 등 보건의료 ▲1인가구·교육·안전·환경 등의 일상생활 등 도정 모든 분야다.

전남도는 접수 의견을 검토해 중앙규제는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에 직접 건의해 처리 진행 상황 전보를 관리하고, 지방규제는 자체 개선토록 도 관련 부서, 시·군과 협력할 계획이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규제혁신은 도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다”며 “작은 변화가 큰 힘이 되는 규제혁신을 위한 집중 발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판단으로 도민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규제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방문을 바라는 도민은 시·군 규제개선 담당 부서, 전남도 규제개혁팀(061-286-2653)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재정 기자

광주 AI 디자인 공모 개최

4개 분야...대상 500만원

광주시는 9월 “급변하는 AI(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2025 광주 AI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 ‘AI×문화중심도시, 당신이 생각하는 광주’다. 제품 디자인,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디자인, 시각·정보 디자인, 공공시설물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특색을 담은 창의적인 디자인 결과물을 공모한다.

디자인기업, 디자이너, 일반인, 대학(원)생 등 AI 디자인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응모 희망자는 광주디자인진흥원 누리집(gd.cor.kr) ‘공지사항’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디자인 결과물 이미지, 생성형 AI를 이용해 디자인을 개발한 과정을 담은 자료(PPT) 등을 구글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1인(팀·기업) 당 3개 작품까지 출품할 수 있으며 공모 접수는 오는 8월4~7일이다.

시상은 ▲대상 1점, 500만원 상금 ▲최우수상 2점, 각 300만원 ▲우수상 2점, 각 100만원 등 ▲장려상 4점, 각 50만원이다. 출품작 수준에 따라 특선(출품작의 5% 이내), 입선 작품도 선정할 예정이다. /변은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